

| 재정 정책 | 통화 정책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세율 인상 / 인하 | 국공채 매입 / 매각 |
| | 지급 준비율 인상 / 인하 |
| 정부 지출 확대 / 축소 | 중앙은행 대출 확대 / 축소 |
| | 기준 금리 인상 / 인하 |

- 원화 표시 GDP 변화율 < 달러화 표시 GDP 변화율 => 원/달러 환율 하락
- 원화 표시 GDP 변화율 > 달러화 표시 GDP 변화율 => 원/달러 환율 상승

- 부가가치 = 임금 + 지대 + 이자 + 이윤
= 판매 수입 - 중간재 구입 비용

- 지출 GDP = 민간 소비 + 민간 투자 + 정부 지출 + 순수출(=수출액 - 수입액)
- 분배 GDP = 임금 + 지대 + 이자 + 이윤

- 준비 자산 음(-) = 국제 수지 흑자
- 준비 자산 양(+) = 국제 수지 적자

- 본원 소득 수지 = 배당, 이자 등 투자 소득 / '임금' 등 ex) 투자 소득
- 자본 수지 = '이주 자금' 등 비생산, 금융 거래 외화
- 금융 계정 = 직접, 증권, 기타 투자 및 준비 자산 ex) 투자금

- 처분 가능 소득 = 소득 - 비소비 지출
- 소비 지출 = 교통비, 통신료 등
- 비소비 지출 = 조세, 대출 이자, 보험료, 연금 등

- 채권 = 타인 자본 / 주식 = 자기 자본 (발행자 입장)

- '상여금' = 근로 소득

- 비교 우위 재화 = 교역 후 기회비용 증가
- 비교 열위 재화 = 교역 후 기회비용 감소

- 이전 소득 = 정기적
- 비경상 소득 = 비정기적, 일시적

- 중앙은행 외환 매입 -> 환율 상승
- 중앙은행 외환 매도 -> 환율 하락

- 경상 수지 흑자 -> 외화 공급 증가 -> 환율 하락
- 경상 수지 적자 -> 외화 공급 감소 -> 환율 상승

- 경상 수지 흑자 -> 통화량 증가 -> 물가 상승
- 경상 수지 적자 -> 통화량 감소 -> 물가 하락

- 환율 상승 -> 수출 증가, 수입 감소
- 환율 하락 -> 수출 감소, 수입 증가

- GDP 디플레이터 = $\text{명목 GDP} / \text{실질 GDP} \times 100$

- 고용률 = $\text{취업자 수} / \text{15세 이상 인구 수} \times 100 (\%)$
- 실업률 = $\text{실업자 수} / \text{경제 활동 인구 수} \times 100 (\%)$

- 선택지가 3개 이상 있을 때 1등 선택과 2등 선택의 순편익은 각각 '절댓값이 같고 부호만 다름'

- 무역 시 총 잉여(사회적 잉여) 증가

- 가격 상승: 소비자 잉여 감소 / 생산자 잉여 증가
- 가격 하락: 소비자 잉여 증가 / 생산자 잉여 감소

- 실질 이자율 \asymp 명목 이자율 - 물가 상승률

- 실질 GDP = 생산량, 경제 규모